

제 1 부 총론 (第 1 部 總論)

제 1 부에서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신도사(神道史) 흐름을 개설(概說)하고, 신도(神道)에 영향을 미친 종교나 사상, 즉 중국고대사상, 불교, 음양도(陰陽道), 유교, 슈겐도(修驗道), 기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한다. 신도라는 개념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가지로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신사신도(神社神道), 교파신도(教派神道), 황실신도(皇室神道), 민속신도(民俗神道), 학파신도(學派神道) 등으로 하위구분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이외의 하위구분, 또는 전혀 다른 구분법도 있다. 신도사(神道史)는 시대에 따라 특징적인 전개를 보이지만, 신들의 공적(功績)에 대한 감사, 기원, 두려움과 같이 옛부터의 신기신앙(神祇信仰=天神地祇)이 신도라는 종교의 중핵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신도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다. 신도가 일본인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본다면, 신도적인 요소로 여겨지는 것의 시초는, 일본문화의 시초와 겹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신도가 중국 고대사상이나 대승불교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종교라는 입장을 취한다면, 이러한 외래종교의 촉발에 의해서 명확한 형태를 취하는 종교의 발아형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결국 명확한 출발점이 없는 이상, 신도의 원초적 형태는 애매하다. 애니미즘, 샤머니즘, 조상령신앙, 자연숭배 등 다른 민족종교에도 많이 관찰되는 신앙형태가 점점 특징이 있는 의례, 신앙내용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신도의 고대적 형태를 논하는 시각을 크게 나누면, 유적에 의한 것과 문헌에 의한 것이 있다. 전자는 유적이거나 출토품에서 고대의 제사형태, 신앙내용을 추측하는 것이다. 또 후자는 기기(記紀)*나 풍토기(風土記)*, 만엽집(萬葉集)* 등의 고전의 기재내용에서 신기신앙의 옛형태를 재구성하고, 고대인의 신앙내용을 추측하는 것이다. 여기에 신화학의 발상이 도입된다면, 다른 문화의 신화와 일본신화의 내용이 비교되게 된다. 신도의 중핵에 놓여있는 신기신앙은 고대부터 일정한 형태가 갖추어져 있고, 율령체제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율령체제의 붕괴와 함께 신기신앙도 변질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 불교의 영향이 널리 퍼져감에 따라, 사상적 면에서도, 실제생활적 면에서도, 신불습합(神佛習合)*의 정도는 가속되어 간다. 게다가 무사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하치만신앙(八幡信仰)* 등 무사의 신앙형태가 신사숭경(神社崇敬)에 변화를 야기시키게 된다. 카마쿠라(鎌倉)시대 이후, 여러가지 신도유파(神道流派)·학파가 생겼다. 에도(江戸)시대가 되면, 유학의 영향을 받은 신도설이 새로운 전개를 보인다. 게다가 국학(国学)*이나 복고신도(復古神道)*의 등장은, 근대이후의 신도전개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근대 이후는, 막부말(幕府末)의 국학이나 복고신도의 영향을 받아서 신기신앙과 국가의식, 천황제와의 관계가 급속하게 깊어졌던 시기이지만, 신도의 전개에서 보면 제 2 차 세계대전 전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전(戰前)은, 근대신기제도와 교파신도(教派神道)* 체제의 확립이 특히 중요하다. 또 신도계신종교(神道系新宗教)*의 성립시기이기도 하다. 전후(戰後)는, 새로운 법체제하에서의 신도제도가 확립되어, 신사본청(神社本庁)시대로 들어간다. 게다가 신도계신종교의 누적적인 증가가 눈에 띄게 된다.

신도에 영향을 미친 종교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이다. 중국 고대사상이나 유학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본다. 음양도는 특히 사람들의 길흉감각이나 신도의 부정을 제거하는 의례(祓の儀禮)*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도교의 영향도 지적되고 있는데, 신도에 영향을 미친 도교적 요소의 대부분은 제 1 부에서 다룬 중국 고대사상이나 음양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 유교는 고대이후의 의례적·사상적 영향과 근세의 유학으로서의 영향이 있다. 슈겐도(修驗道)는 그 자체가 신불습합의 산물이지만, 일단 성립된 것이 근대의 교단신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거친다. 기독교의

영향을 논하는 일은 적지만, 국학의 영향이나, 근대의 교단신도와의 관계는 간과할 수 없다.

이노우에 노부타카(井上順孝)